



“신혜성 댄스 기대하세요”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딜라이트’ 발표

“팬들께서 ‘헉’ 하고 놀라기를 바랐어요. ‘신혜성이 댄스그룹의 메인 보컬이었구나, 잊고 있었네!’ 해주시길 바라요.”

그림 신화의 메인 보컬리스트 신혜성(37·사진)이 솔로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앨범 ‘딜라이트’(delight)를 선보였다.

‘기쁨’이라는 뜻의 앨범 제목은 신화 18년, 신혜성 솔로 10년 동안 꾸준히 응원해준 팬들에게 기쁨을 주자는 의미에서 지었다. 그가 팬들에게 주고자 한 첫 번째 기쁨은 ‘춤추는 신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혜성은 이번 앨범에서 처음으로 댄스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이전 솔로 앨범에서 발라드나 브리티시 록에 주력해 온 그의 이번 타이틀곡 ‘로코 드 라미’는 중간 박자의 알앤비(R&B) 곡이다.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최근 기자들과 만난 신혜성은 “솔로 앨범을 내면서 한 번도 무대 퍼포먼스를 하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기에 그 모습을 팬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았다”며 “사실 10주년은 지난해였지만, 방향을 틀고 안무 연습을 하느라 앨범 발매가 늦었다”고 소개했다.

“저는 신화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날개’에 있었고, ‘센터’는 민우(이민우)와 진이(정진)에게 양보했어. 민우나 진이는 솔로로서도 멋있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었죠. 그래도 저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를 찾아서, 잘 어울리는 춤을 추고 잘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날개”에 서 있을 때는 동작이 서툴면 댄스 뒤에 몸을 가리는 방법으로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온전히 솔로 무대에 설 때는 안무도 완벽해야 하기에 연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혜성은 “힘 있고 난도가 높은 안무는 어렵기도 하고 저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팔다리 선을 이용한 안무 위주로 짰다”며 “3~5초 등장하는 동작을 완벽히 하려고 몇 시간씩 연습을 하기도 했다. 저에게 굉장히 잘 맞는 안무를 만들었기에 결과물은 80~90% 만족한다”고 말했다.

신혜성이 준비한 두 번째 기쁨은 적극적인 방송 출연과 공연이다. 신혜성은 음반 활동 기간에 여러 음악방송은 물론이고 케이블과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8회에 걸쳐 콘서트를 연다.

“지금까지는 예능 출연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웃음과 재미를 드릴 자신이 없는데 나가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활동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은 없어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얼굴을 비추려면 팬들은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랑받은 것을 많이 보상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열아홉에 데뷔한 신혜성은 이제 어언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최장수 아이돌이라는 영광에 더해 ‘조상님’, ‘화석돌’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은 그는 “요즘처럼 제가 활동하는 것에 감사한 적이 없다”며 “어렸을 때는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느꼈지만, 요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번 앨범 준비를 하다 보니 아직도 제가 무대에서 안 한 것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무대 하나가 추가된 느낌이라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좋아해줘’의 제작발표회에서 주연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SNS로 통한 3색 로맨스

영화 ‘좋아해줘’ ... 이미연·유아인·최지우 등 톱스타 출연 눈길

박현진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좋아해줘’를 “세 커플의 로맨스를 다룬, 귀엽고 따뜻한 영화”라고 요약했다.

박 감독은 12일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진행된 제작보고회에서 “요즘 생활의 일부가 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모습이 장면, 장면에 많이 드러나 관객들이 재미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좋아해줘’는 각기 다른 세 커플이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자리 잡은 SNS를 통해 연애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다.

까칠하기로 악명 높은 스타 작가 조경아(이미연)와 안하무인 한류스타 노진우(유아인)가 한 커플, 허술해 보이는 것이 매력적인 노치녀 스텐디스 함주란(최지우)과 오지랖이 넓은 노총각 셰프 정성찬(김주혁)이 또 다른 커플을 이뤘다. 젊은 세대로 연애에 ‘초짜’인 작곡가 이수호(강하늘)와 연애 고수의 드라마 PD 장나연(이솜) 커플이 등장한다. 이미연, 최지우, 김주혁, 유아인, 강하늘, 이솜 등 한 스크린에서 보기 어려운 배우들이 한데 뭉쳤다.

박 감독은 “이 조합이 꾸러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캐스팅이 됐다”고 자평했다. 유아인은 공공연하게 이미연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이상형으로 꼽는 선배”라며 칭찬하고, 이미연은 “유아인 씨는 개성이 강한 친구다. 연기를 워낙 집중력 있게 해 제가 좀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7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최지우는 김주혁과는 사적인 친분도 없고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지만 “첫 촬영 때부터 편했다”고 했다. 김주혁 역시 “이렇듯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했다. 편하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소극적이던 강하늘, 이솜 역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위 ‘유행’ 주연을 맡아도 될 이들이 ‘무더기’로 출연한다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을까. 이미연은 “배우간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먼저 캐스팅된 유아인이라는 배우에 대해 궁금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며 “(영화에서) 쿨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최지우는 “파트너와 호흡이 재미있을 것 같았고 다른 커플의 연기가 궁금하기도 했다”며 “편하게 내려놓은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로맨스 영화는 결국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고백의 뒤에는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해달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만 좋아할게라는 로맨스는 없다”며 “또 페이스북의 ‘좋아요’와도 연결이 된다”고 영화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서진·유이 MBC 주말극 ‘결혼계약’ 출연

배우 이서진과 유이가 ‘내 딸, 금사월’ 후속작 MBC 주말극 ‘결혼계약’(가제)에 출연한다.

‘결혼계약’은 인생의 가치가 돈 뿐인 남자와 삶의 벼랑 끝에 선 여자가 극적으로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정통 멜로 드라마다.

1년6개월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이서진은 냉

정하고 오만한 ‘금수저’ 도련님 한지훈 역을 맡았다. 유이는 싱글맘 강혜수 역으로, 어린 딸을 위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제작진은 “오랜만에 선보이는 정통 멜로 장르로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통해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서진

유이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미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방학특선 다큐 운동장 프로젝트(재)	00 2016 리우 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예선 (대한민국 vs 우즈베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10 덕터 365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45 덕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20 능력자들 스페셜	20 세상발전 유레카
2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00 건강클리닉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00 명경만리 2016 트랜드 쇼(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공학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싸이걸스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아름다운 청춘, 10인의 도전(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뿌리기 탐구 생활
5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블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개밥주는남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며느리의 성)
8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끝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이야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00 미국의 부활 (제1편 첨단산업의 리더) 55 숨터	00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	00 드라마 스페셜 (리버비 아들의 전쟁)
11 00 아내가 뿔났다 스페셜	00 KBS 뉴스라인 40 아름다운 청춘, 10인의 도전	10 해피 투게더	10 위대한 유산 도시아이 시골살이	15 자기야
12 3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출발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5 MBC 다큐프라임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한국음악기행 07:00 지파이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덩동영 유치원 1 08:10 통통가족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덩동영 유치원 2 08:30 두다디쿵 08:40 덩동영 유치원 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크레머의 창의력 팡팡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크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사이먼 시즈3-왔다! 사춘기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머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영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원스 18:2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2 18:25 야옹명명 귀여워	18:4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3 18:45 스텔렌드-한자왕국 18:5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크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낯선 시간으로의 초대 요르단) 21:30 한국기행 (영덕엔 뭔가 특별한 것 있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특집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4일(음 12월 5일 乙未)

子	48년생 과욕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니 집착을 버려라. 60년생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72년생 김홍의 상극선이 길게 뻗어 있다. 84년생 실적이 없다던 아예 관련시킬 이유도 없었다. 행운의 숫자 : 81, 47	午	42년생 현재,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54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78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행운의 숫자 : 61, 69
丑	49년생 당해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61년생 지나치다면 가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73년생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느니라. 85년생 방심하다가 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행운의 숫자 : 48, 93	未	43년생 조심만 잃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었다. 55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67년생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으니 여과 없이 참고함이 나올 것이다. 79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3, 74
寅	50년생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62년생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점에 놓여있다. 74년생 부수적인 것을 차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임하라. 86년생 처음의 것이 가장 나으니 그것을 택하라. 행운의 숫자 : 68, 83	申	44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하고야 말 것이다. 56년생 미련을 버려도 늦지 않다. 68년생 허레나 명분은 허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을 우선 해라. 80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어다니면 가지 말라. 행운의 숫자 : 86, 44
卯	51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키게 될 것이다. 63년생 현재의 실적만을 따지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보람이 있다. 75년생 힘써 왔던 바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87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91, 26	酉	45년생 혼탁해서 벗어나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겠다. 57년생 드러나지 않은 것이 변수로 작용하리라. 69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 볼 일이다. 81년생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5, 87
辰	40년생 가법적인 형국이 끝까지 작용한다. 52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64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76년생 결코 가법계 다들 문제가 아니다. 88년생 바람직한 일을 꾀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4, 60	戌	46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배려된 일이 꼭 이루어 것이니라. 58년생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길조가 보인다. 70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82년생 안경에 들어서게 될 것이니 마음 놓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0, 92
巳	41년생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양호해진다. 53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65년생 통제할 줄 알아야 완성될 것이다. 77년생 해안이 절실하다. 89년생 보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7, 38	亥	47년생 기본 일을 맞이함으로 인해 신명날 것이다. 59년생 균형과 조화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71년생 여태까지 쌓아 온 바를 평가받게 되리라. 83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4,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